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내게로 올 자들 I

(요 6:36-37)

이종윤 원로목사

현대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 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 답지 못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떡이 되 시 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먹어야 할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것을 바로 먹지 못할 때 교회는 병이 들고 힘을 잃어 허약한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불가능한 존재인 인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 느니라"(36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 병이여의 기적을 본 제자들과 수천 명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 지 아니하는도다"(3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였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져보면 믿을 수 있을 줄 알았고, 눈으로 보면 예 수님을 섬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고도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 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44절)라고 말 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 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은 인간은 혼자서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 니다. 우리 중에 "내 발로 내가 걸어왔고 내 눈으 로 내가 보고 내가 방향을 정하여 교회로 왔습니 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것 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 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구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 습니다.

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능 력이 없음을 말해 줍니다. 앓은뱅이가 되면 기어 서라도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눈이 없는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앓은뱅이가 되면 절대 로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 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 헤매봐야 하나님이 찾 아와 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만날 수 없습니다.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 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 저

주를 받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해야 되는 사람 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 는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두 다리에 힘 을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 니다.

②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음을 말해 줍니다. 보았다고 믿 는 것이 아니며 만졌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은 이미 오병이여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 로 체험했지만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2.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 이요"(37절 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 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는 존재임에 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 다(36절).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분 노하신 손입니다. 우리는 항거할 수도 없고 처분 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 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붙들고만 계시는 것이 아 니라 붙든 사람 가운데 천 명 중의 한 사람, 만 명 중의 한 사람을 골라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구원받은 자'입 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의 손으로 붙들고 계 시다가 지옥으로 던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요 17:2).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 대 신 기도까지 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 달 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 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 람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겠습 니까? 우리 가운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자 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예수 님께 주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출범하다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후임 담임목사 청빙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회는 지난 수요일 정기당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청빙 절차에 착수하였다.

당회는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담임목사 청빙준비 소위원회'의 의견과 오랜 역사를 가진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관련 규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오랜 분쟁과 담임목사 부재 과정을 거친 교회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담임목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에 모시되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본 교단 소속 타 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사역을 거쳐 충분한 목회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만한 분으로서 서울교회 규정에 따라 처음 안식년을 갖는 시점 이전에 은퇴하게 될 60세 이후의 담임목사를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 교회설립의 기초를 마련한 초대 이종윤 원로목사로부터 후임목사로 평온하게 목회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 후임목사가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전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후임목사의 여러 가지 목회상의 문제로 오히려 오랜 교회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결과를 되돌아보며 이번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후임목사가 목회를 잘 마치고 다시 그 후임목사에게 성공적인 목회 승계가 이루어지는 목회 승계의 선순환 구조와 전통이 꼭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물론 일부 성도들 중에는 목회 경력의 좀 짧더라도 보다 더 젊고 참신한 목회자를 모셔 그동안 오랜 교회 분쟁으로 침체된 교회 분위기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또 졸속 검증의 위험성 배제를 위해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충분한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청빙절차를 진행하자는 요청도 있지만, 자칫 경력이 짧은 목회자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우를 범할 위험성, 젊은 목회자의 경우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위임을 보류하게 되면 위임목사가 아님에 따른 교단 행정적 불편함도 많고 또 3년마다 다시 임기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경우 흑시라도 겪게 될 성도들의 찬반갈등도 우려되며, 무엇보다도 검증 등의 이유로 장기간 후임목사 부재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한 성도들의 사기저하나 무력감 폐해도 심각할 수 있고 특히 장기간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로 노회 파송의 임시당회장과 장로중심의 당회를 통한 목회운영에 따른 한계나 교회 장기비전설정의 부족은 물론 최근 더욱 변화무쌍한 목회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고 또 노회의 잦은 행정적 감독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은 방향성의 목회자를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앞서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의 목회경력으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만한 후임목사를 청빙하려는 방향성에 맞는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청빙절차처럼 대상자가 직접 자원하도록 여유 있게 기다리며 공모한 후 그중 적절한 분을 선정하는 형태로서는 불가하고, 오히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목회자를 널리 추천받아 교회가 직접 찾아가 분쟁 후 교회 상황을 잘 설명하고 호소하여 허락을 받아 청빙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청빙위원회는 우선 이러한 청빙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오늘 순례자를 통하여 공고한 후 앞으로 두 주간 동안 성도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회가 공고하는 청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임상헌 장로(당회서기)
- 서기 : 최형열 장로(기획위원회 서기)
- 위원 : 임상헌 이계홍 오치열 송인권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이상 사무장로) 노문환 김광태 김선영 송인수 예완식 이민호 정현구(이상 소위원회 위원)
- 청빙대상 목사 추천기간 : 2021년 3월 15일(월)부터 3월 28일(주)까지
- 청빙대상 목사 추천방법 : 청빙위원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 (사무국에 비치됨)
- 청빙대상 목사 추천자격 : 청빙위원을 제외한 모든 성도
- 청빙대상 목사 선정방법 : 청빙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목사

- 청빙대상 목사 고려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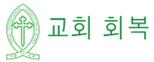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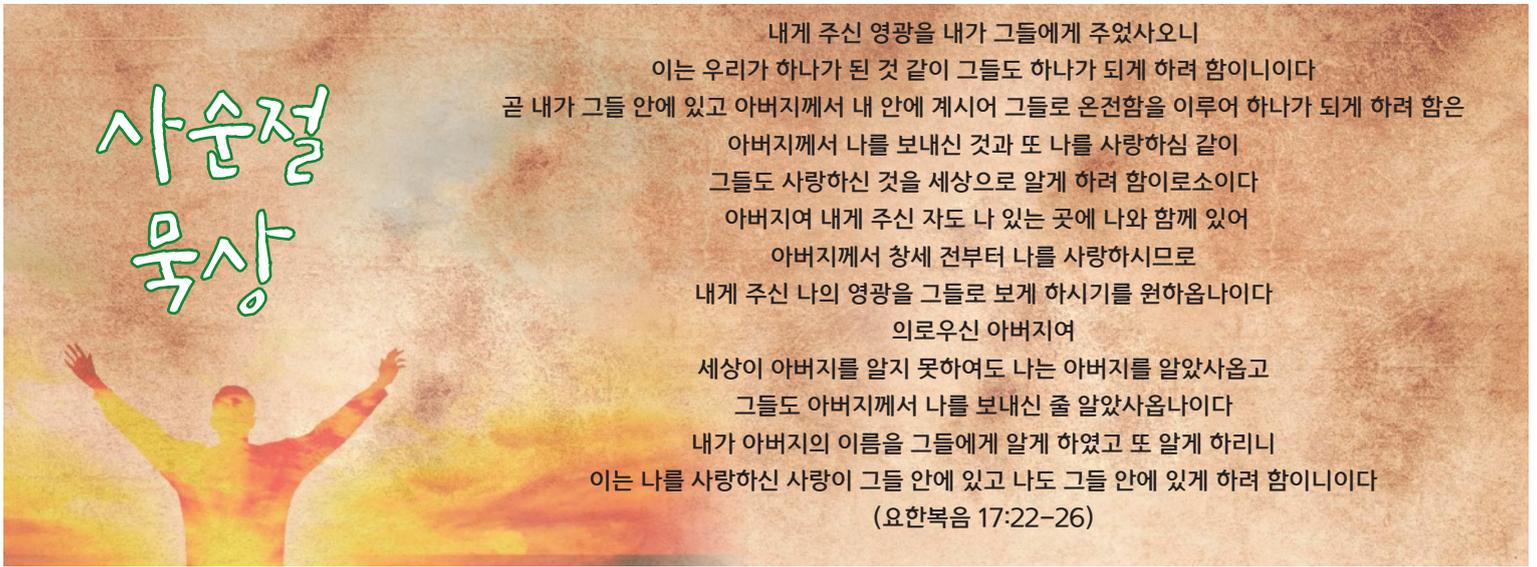
1. 성경적 복음적이며, 서울교회 설립정신과 사역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
2. 정직하고 청렴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상 어려움이 없는 분
3. 교우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오랜 교회 분쟁을 겪은 성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깊은 영과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분
4. 10년 이상의 담임목사 경력이나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교수경력(두 경력 합산가능)을 가진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60세 이상인 분

이제 지난 날 목회자로 인한 아픔을 교훈 삼아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목회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담임목사의 청빙이 순탄하고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물 보수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건축물 보수 소위원회(위원장 차도훈 장로)는 지난 3월 7일(주일) 모임을 갖고 그간 진행되었던 8층 식당 조리실 바닥 방수 및 보수 공사 결과를 보고하며 식당의 LED 등 교체 여부, 의자 식탁 보수 등을 협의 후 시행하기로 하였고 교회 내의 남은 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식당 조리실 바닥 문제는 2017년 교회 분쟁 이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식당 조리실 밑에 위치한 706호(유아부) 천정에서 식당 개수물이 새어 나와 아기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몇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고심하던 중 교회 분쟁이 시작되었고 작년 10월 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중단되었었다. 이번 공사를 위해 당회 주

관으로 업체 세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식당 바닥 공사를 위해 식당의 각종 집기류 철수 및 철거 작업이 필요한바 스테반회와 권사회를 중심으로 교역자와 직원들이 합심하여 집기류 철수와 세척, 재설치 작업을 했다.

용역이 상주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교회당은 고치고 손 보아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9층은 폐허나 다름없이 각종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상태이다. 이에 건축물 보수 소위원회는 9층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방수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용적율 100%를 사용한 관계로 추가 공간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보수 위원회는 차근차근 교회 건물 보수와 추가적 내부 리모델링, 교역자 사택 및 아가페타운 보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위원회 자문 오정수 장로는 모든 공사 비용은 교회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이어질 공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허숙 권사(전략 기획·홍보 소위원회 위원)



① 공사전 8층 주방 ② 공사 후 8층 주방 전경 ③, ④ 공사 중 도움을 주신 스테반회, 권사회, 직원들 ⑤ 정리된 8층 만나홀

2021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계홍 장로)는 2021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7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동들이 되도록 기도 바란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송암장학생 - 3명
정은서 이가진 김태수
- 브리스길라 - 4명
우고은 김수연 김행언 백요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호산나대학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총재 김경수)는 지난 3월 3일(수) 호산나대학 제16회 입학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 10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 원씩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김경수 총재는 사전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 중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호산나대학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

지구와 2018년부터 “드림장학금 기탁 양해각서”를 통해 상호간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호산나대학 이동기 부학장은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김경수 총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받기만하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따뜻한 심성을 갖는 호산나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월 20일(토) 바이오스타 줄기세포연구소(원장 라정찬 박사) 설립20주년 감사예배에서 감사와 격려,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한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15일	월	수 18-19		느 8-13	
3월16일	화	수 20-21		에 1-10	
3월17일	수	수 22-24		욘 1-6	
3월18일	목	삿 1-3		욘 7-13	
3월19일	금	삿 4-6		욘 14-20	
3월20일	토	삿 7-9		욘 21-28	
3월21일	주일	삿 10-12		욘 29-3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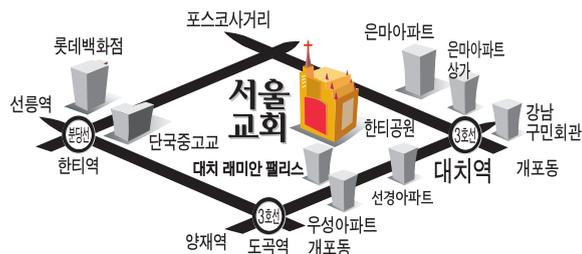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님을 찾아 보내주시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쉼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2.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3.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